**반면교사(反面敎師) –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마태복음 23장 23-37절>**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관대하시고 포용적이셨던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흥분하시며 거칠게 말하거나 행하실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에 화가 나셨을까요?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 구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필사하던 사람들, 즉 율법선생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을 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 아래 있던 그 비참한 현실을 타개하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오래된 모세의 율법을 현대화하여 적용하는 것, 즉 그들 시대에 맞는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의지, 그 자체가 문제일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출발은 지극히 순수하고, 겸손하고, 성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며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며 더 나빠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느 길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총 일곱 번에 걸쳐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며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길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작은 것은 중시하고 큰 것은 무시하고 있다** 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채란 모두 향신료로 쓰이는 허브식물들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기름의 십일조는 언급돼 있어도, 이런 허브식물들의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 규정은 후에 바리새인들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십일조 규정은 이렇게 허브식물들에까지 적용하며 철저히 지키게 하면서, 정작 그 율법의 근본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다 갖다 버렸느냐?*

‘정의’(justice)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생존권과 공정한 소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상황에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애쓰는 일과 관련됩니다(레19:13-16).

‘긍휼’(mercy)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너그럽게 용납하고 마음을 합하여 그와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긍휼’은, 가난한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나눔과 배려, 내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일, 고통받는 이웃을 피하여 숨지 않고 그와 마음을 함께하는 일과 관련됩니다(레19:9-10,17-18;사58:6-10).

또한, 여기서 ‘믿음’(faithfulness)이 의미하는 바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이웃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신실함’은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그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길을 가는 것과 관련됩니다(레19:3-4,11-12;합2:3-4).

이처럼 율법의 모든 규정들은 사실, 작은 생명 하나도 업신여겨지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그 팔로 막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와 가르침 속엔 이 본질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수한 규정들 하나 하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에만 관심을 두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평가하고 정죄했으며,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해로운 자들로 분류하며, 소위 ‘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사람들을 체로 걸러내는 일과 같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큰 낙타는 삼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철저히 구현하고, 율법의 세부적인 모든 규정도 철저히 준수하라는, 부담을 더 얹어주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율법규정을 준수하는 일과 그 속에 담긴 근본정신을 기억하고 구현하는 일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십일조 규정이든, 안식일 규정이든, 제사 규정이든… 모든 율법 규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니 성실히 행하려 노력하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지 않고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당시 그들이 범했던 잘못은 얼마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구제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질 수 있고, 우리 서로간의 관계와 교제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빠질 수 있고, 우리가 말과 삶으로 행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 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저리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 행위가 한번 두번 이어지다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정신과 마음이 중요하지 외적인 종교행위 자체는 별로 의미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겉만 신경쓰고 속은 더럽게 방치하고 있다** 하십니다.

본문 25-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물건만 접촉해야 한다는 의식에 과도하게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잔이나 대접 같은 각종 주방기구들의 청결에 매우 신경썼을 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죄인들과는 부정을 염려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그들 눈에 좋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외면적인 정결에는 집착하면서도, 정작 자기 내면의 더러움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시며, 실제 그들 속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십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개인적 욕구에만 집중하며 강력한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겉과 속의 모순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들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큰일나겠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라면서 그것을 적당히 감추거나 걸러내는 법을 배우고, 어쩌면 그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아름답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아름다우리라*

우리의 내면은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 은혜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올 때 세수 안 하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외모를 깨끗이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우리 내면을 깨끗이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오늘 내게 닥칠 상황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bios)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한 생명, 즉 그분에게 속한 생명(Zoe)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의인 행세를 하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하십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본인들을 그 박해받은 선지자와 의인의 편에 교묘히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하십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지만, 현재 그들의 행위는 실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며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결국 얼마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길 위에 서 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범한 잘못을 한심하다는 듯 비판하면서, 혹은 내 선배나 동료가 행한 실수나 잘못을 한심하다는 듯 비판하면서, 은근히 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 듯, 묘한 자부심에 사로잡히지만, 그건 착각이요 자기기만일 뿐, 실제 나도 그들과 똑같은 길에 서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정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문득,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던 게 생각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는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스스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경험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 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진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우린 나름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 속에 모든 진실이 다 담겼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무엇보다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고, 성경이 말하듯,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의’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들의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경우도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날개 아래에 모으시는 분이며, 지금도 그 일은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면, 나도 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 말씀이 다시금 아프게 우리 마음을 치지만, 반면교사 –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배우고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애정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돌을 던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분의 날개 아래 모으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우리를 늘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